

음양오행설에 의한 五色의 意味에 관한 연구

A Study to the Five Cardinal Colors Meaning in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Theory

김금주

대덕대학 컴퓨터그래픽과

Kim, Keum-Joo

Dept. of Computer Graphic TaeDeok College

● Key words: Colors, White, Black, Red, Blue, Yellow

1. 머리말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색채는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즉 색채의 상징성이나 의미는 나라와 민족, 지역성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 종류의 색깔을 두고 여러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며 갖가지 구구한 의미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원래 색채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속성과 관념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적어도 한자와 젓가락을 공통적인 문화로 사용하고 있는 동양권의 영역에서 색채에 관한 기본 관념만큼은, 중국 고대의 음양 오행설에 의한 이른바 「오색설」에 명백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후대에 와서 각 민족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점차로 그 의미가 변화를 거듭하여 다양성을 내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설의 체계에 따른 사상, 철학, 학술, 의술 등의 모든 면에 걸쳐서 그 세례를 받아온 고대 한국의 문화는 색채 방면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바탕에는 오행설 속의 영향을 농후하게 받아서 성숙되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색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색설을 대략적으로나마 조망해 봄으로써 고대 우리나라의 색채관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곳곳에 잔존해 있는 오색설의 영향을 입은 색채에 관한 문화와 습속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본다.

2. 陰陽오행설과 五色

고대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지배해온 음양오행설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규범을 오원소의 동태, 순환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써 「오행」은 오기 혹은 오성이라고도 말하며 만물근원의 에너지를 가르키고 있으므로 「오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폭넓은 학문의 체계를 이루어 인간의 일상생활, 인생관등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철학 원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오원소의 운행경로는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우선 「상생」은 서로 상대에게 유익한 작용을 주어서 활용하는 순환이며, 「상극」은 상대에게 마이너스 작용을 주어서 이간다고 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오원소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보면, 전자는 「원형」(그림① 상생 참조), 후자는 「별모양」으로(그림② 상극 참조)으로 된다. 이들의 순환을 보편적 순환으로서 만물이 이에 근거하여 무한한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또, 천, 지, 인의 넓은 의미로 우주와 만물의 표상이 되는 동체로 되어 있으며 한가지가 변화나 변동을 일으키면 그 밖의 두 가지도 그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예를 들면 「오성」의 색이 희고 원형

으로 되는 것은 죽은 사람과 가뭄의 표시이다. 붉으면서 둥글게 되는 것은 나라 안이 평온치 못하고 병란의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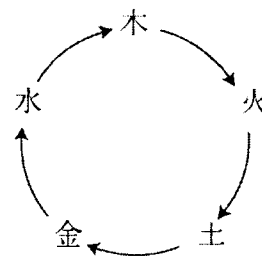


그림 ①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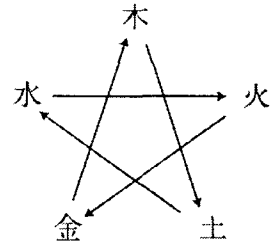


그림 ② 상극

푸른색이며 둥근 것은 우환과 수해의 표시이다. 검으면서 둥근 것은 병색의 표시로서 죽는 사람이 많다. 황색이면서 둥근 것은 길조이다. 붉으면서 각이 지는 것은 토지의 다툼이 일어나고, 희면서 각이 지는 것은 슬프게 울게 되는 것의 표시이며, 푸르면서 각이 지는 것은 병란의 우려가 있으며, 검으면서 각이 지는 것은 수해가 있으며, 오성의 색이 같으면 천하에 군대를 동원할 일도 없고 사람들은 모두 평화스럽게 번영한다. 「토성의 색이 오색에 대해서 언급하면 푸른색이면서 둥글면 우환, 흰색이면서 둥글면 죽음, 붉으면서 둥글면 국내가 평온치 못하고, 검으면서 둥글면 길조, 붉으면서 각이 지면 내 나라의 성이 침범 당하고, 누르면서 각이 지면 토지의 다툼이 있고, 희면서 각이 지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징조이다.」 이것들은 「사기」의 「천관서」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오색」과 천체를 관련시킨 현상을 점치는 기술은 이밖에도 상당히 예로 들어볼 수 있고 이곳의 기술에는 동의 칠성을 창용, 남의 칠성을 주작, 서의 칠성을 백호, 북의 칠성을 현무, 북두와 남두의 15성은 황룡을 나타낸다고 적혀 있다. (그림 ③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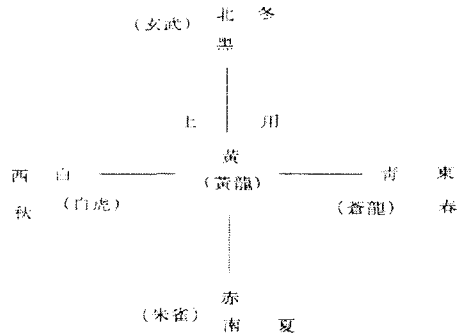


그림 ③ 四季, 方位, 星座, 守護神獸

이러한 성좌의 명칭은 동시에 각각 오방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수의 이름이기도 하며 신화탄생의 원점으로 되어 있다.

3. 五色의 의미

3-1. 白色의 의미

오행에서 보면 白은 상(喪)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언제부터 白이 상을 나타내는 색이 되었는가 확실치 않지만 「예기」 등에는 백과 흑의 두 가지 색이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행에 배당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색 - 백, 방위 - 서, 계절 - 가을, 신수 - 백호와 같은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이유로 죽은 자의 혼은 하양과 이윽고 소생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괴기 소설인 괴담에 등장하고 있는 유령은 예외 없이 「白」색이며 장례식 때 쓰는 옷들 역시 거의 흰색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가까운 색들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白」은 멸망, 재생, 희망, 고귀가 혼합된 일관성이 있는 색으로서 생사의 흐름과 변화처럼 불변의 색 일 것이다.

3-2. 黑色의 의미

「흑(黑)」은 「현(玄)」이라고도 쓰며 옛적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다. 현의 형상이 검은 실을 묶은 것 같다.는 점에서 하늘의 색, 심오한 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자, 장자의 사상과 도교 등은 현도(玄道), 현교(玄敎), 현학(玄學)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흑」은 지하의 색으로서, 재생, 풍작도 의미한다. 또, 모신(母神)등과 결합하여 비옥한 대지인 [흑]과 통한다. 이 비옥한 검은 대지는 곡물 등의 수확 후, 1년간의 휴식과 재생, 다음 번의 풍작의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흑」의 배당을 보면, 색 - 흑, 방위 - 북, 계절 - 동(겨울), 신수 - 현무가 된다.

3-3. 赤색의 의미

오행의 배당을 살펴보면, 색 - 적, 방위 - 남, 계절 - 하, 신수 - 주작, 제와 - 엄제 등이 되는데 중국의 문화사에 있어서 엄제는 불을 조종하는 신으로서 백성들에게 불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한편, 불을 불의 덕을 지닌 그 일족의 상징이 되었다. 「적」색은 신앙적인 힘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래의 「적」색에 대한 의미에 역사적인 비중이 더하여져 소위 「정색(正色)」이 되었다. 중국의 국기가 새빨간 색을 쓴다든지 우수하고 영리한 꼬마들의 목에 「홍련건(紅領巾)」이라는 스카프를 두른다는 등의 관념 속에는 「赤」이 역시 「정색」이기 때문일 것이다.

3-4. 靑色의 의미

사망을 지키는 신수가운데서 청룡은 가장 귀한 존재로서 동방에 자리 잡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오행설에서는 청이 봉황의 색으로서 「창천」등의 단어가 생겨났다. 마치 인간의 일생에서 청춘시대는 「인생중의 봄」으로서 연한 싹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녀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생명에 내재하는 불가사의한 에너지는 「청의 주제」이기도 하다.

오행의 배당에서는, 색 - 청, 계절 - 춘, 방위 - 동, 신수 - 청룡등이 된다. 또, 「청의신의 신화」는 오행의 윤리안에서 생기기 되었다는 신화처럼 간주되는데 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신화는 아니고 오행 사상이 중국 전토를 석권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적인 적용성 으로서 침투하고 있었던 것

이다. 또, 청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사람들은 보편성 영구성을 구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3-5. 黃色의 의미

앞에서 기술한 적색이 오래 전부터 중국인들의 구심력의 상징처럼 쓰였다면 황색은 역사적인 왕위에 해당되는 절대적 존재의 상징에 비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은 왕권과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권력과 능력의 상징으로서 왕족의 전용색이 되었고, 오행의 배당을 견주어 생각해 보면 「황」은 중앙의 방위의 색이며 지「地」의 중앙을 지배하는 황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배당의 의미는 현재 북경에 있는 명, 청의 왕조에 걸쳐 토지를 제사 지냈던 사직단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이곳에서는 동서남북에 청, 적, 백, 흑의 흙을 제사 지내며 중앙에 황색의 흙이 배치되어 있다. 이 오색의 토(土)의 배열이 「황토색을 이루면서 위치는 중앙에 해당한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마치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중앙의 황토는 황제이다. 「황」은 대중적인 「적」과 비교할 때, 아무래도 한정된 소수만을 위한 즐거운 색처럼 느껴진다.

4. 맺음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색채에 의한 음양 오행설과의 관계와 그 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습속을 많은 문헌의 예를 들어 가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두 가지의 조그만 발견을 지적 해본다면, 첫 번째는 고대의 완전한 사상체계인 음양 오행설의 테두리 안에서 생성되어진 오색의 관념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동반하여, 점차로 원래의 속성과 그 상대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해볼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이 상대성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인 일본, 한국에 있어서도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관 관 습속들이 잔존하고 있다. 예로부터 자연스레 형성되어진 「피사진성」(액을 좇아내고 경사스런 일만 불러들임) 의미의 상징적인 색깔이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족적인 색채로서 친밀성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우리들 이 평소에 상당히 민족적인 것이라고 여겨왔던 주위의 문화들이, 실제로는 중국의 오색의 영향을 얼마만큼 지대하게 받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오색의 의미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여겨본다.

참고문헌

誠一夫等, (色彩 歷史 文化), 名現社, 1996 년
巖井 寛, (色形 深層心理), 日本放送出版協會, 1992 년
小林 忠雄, (彩), 雄山閣, 1993 년
上村 六郎, (色彩 染), 毎日出版社, 昭化 55 년
福田邦夫, (奇妙 色彩事典), 青娥書房, 1993 년
大岡新編, (色), 作品社, 1983 년
金兩基, (韓國假面劇 世界), 新人物往來社 昭化 62 년
內山完造, (中國人 生活風景), 東方書店, 1979 년
파버비렌 지음 김진한 옮김,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년